

돈맛에 빠진 청년, 돈에 지배 당하다

주식 몰라도 스틸 넘치는 범죄영화 '돈' 20일 개봉...류준열 '원맨쇼'

100억 원대 부자를 꿈꾸는 청년 조일현(류준열)은 여의도 증권가에 주식 브로커로 입성한다.

주식 종목코드를 다 외울 정도로 머리가 비상하지만, 지방대 출신에 연줄 없는 현실의 높은 벽 앞에 좌절한다. 실시간 공개되는 개인별 거래 수수료 성적은 몇 달째 0원. '이 길이 아난가 보다'라며 절망할 때 누군가 검은 유혹의 손길을 내민다. 바로 베일에 싸여있던 증권가 큰 손. 그를 만나려면 변호표를 뽑고 줄을 서야 한다고 해서 '변호표' (유지태)로 불리는 인물이다.

그의 작전 지시에 클릭 몇번으로 수억 원 수수료를 챙긴 조일현은 점차 돈맛을 알게 된다. 쉽게 번 돈을 냄새를 풍기는 법. 금융감독원 '사냥개' 한지철(조우진)이 냄새를 맡고 수사망을 좁혀온다.

이달 20일 개봉하는 '돈' (박누리 감독)은 금융범죄를 소재로 한 범죄영화다. 스프레드, 프로그램 매매, 공매도 같은 주식 관련 용어가 제법 등장한다. 그러나 '주알못' (주식을 알지 못하는 자)도 내용을 이해하는 데 무리는 없다. 작전세력들이 순식간에 시장을 교란하고, 돈이 돈을 버는 모습 등이 스틸 있고 쫄깃하게 그려진다. 식상한 범죄영화 틀을 벗어난 새로운 이야기가 호기심을 자극한다.

돈맛에 빠진 젊은이가 돈에 지배당했다가 결국 잘못을 깨닫는 과정을 그린 성장 드라마이기도 하다. 순진하고 의욕 넘치던 신입사원 조일현은 처음 누리는 물질적 풍요에 행복해하지만, 차츰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광기 어린 모습으로 변한다. 정당하게 번 돈이 아닌 탓이다. 수사망이 조여올수록 초조해하고 불안에 떠다. 그러면서도 클릭을 멈출 수 없다.

류준열은 조일현의 감정 변화를 조금씩 농도를 달리해 입체적이면서 설득력 있게 표현했다. 어떤 역할이든 맞춤형 옷을 입은 듯 해내는 류준열이지만, 한층 더 성장한 연기를 본다.

외모, 학벌, 성격, 집안까지 타고난 '금수저' 동기 전우성(김재영)이나 조일현에게 변호표를 소개해준 회사 선배(김민재) 등 다양한 인물도 극을 풍성하게 한다.

다만 남성 위주 증권사에서 유일하게 여성 브로커인 박시은 대리(원지아)의 모습은 전문직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그대로 담고 있어 씁쓸하다.

금융당국과 검찰의 수사망에 포착됐는데도 위험천만한 거래를 계속 지시하는 변호표나 직원의 수상한 실적에도 손 놓고 있는 회사, 상사의 모습도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 장현도 작가의 동명 소설이 원작으로, '베를린' '부당거래' 등의 연출부와 조감독을 거친 박누리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다. 조 감독은 1년여간 장 시작 전인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여의도 증권가에 머물며 사람들을 지켜봤고 다양한 주식 브로커와 펀드매니저 등을 만나 취재해 시나리오를 썼다고 한다. 그 덕분에 증권사 사무실 내부의 분주한 모습 등이 상당히 현실감 있게 그려졌다.



/연합뉴스

"국민역적 몰렸다" 승리 연예계 은퇴 선언

"주변에 피해주는 일 더는 용납 안돼...성실히 조사 받을 것"

'성적대 의혹' 등에 휩싸인 빅뱅의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승리는 11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 시점에서 연예계를 은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안이 너무나 커 연예계 은퇴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 중인 사안에 있어서는 성실하게 조사를 받아 쌓인 모든 의혹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한 달 반 동안 국민들로부터 질타받고 미움받고 지금 국내 모든 수사기관들이 저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 역적"으로까지 불리는 상황인데 저지 하나라도 주변 모두에게 피해 주는 일은 도저히 제 스스로가 용납이 안 된다"고 심경을 전했다.

또 "지난 10여년간 많은 사랑을 베풀어

준 국내외 많은 팬분들께 모든 진심을 다해 감사드리며 YG와 빅뱅 명예를 위해서라도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승리는 2006년 빅뱅으로 데뷔해 히트곡 '뱅뱅뱅', '마지막 인사', '하루하루', '판타스틱 베이비' 등의 히트곡을 내며 K팝 스타로 떠올랐다.

이후 음식점 등 여러 사업에 뛰어들며 '승츠바'로 불렸지만, 자신이 사내 이사로 있던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마약류 투약과 유동, 성범죄, 경찰 유착 등 각종 의혹이 불거져 실제 운영자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또 해외 투자자 성적대 의혹이 담긴 카톡방이 공개돼 지난 10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돼 피의자로 전환됐다.

/연합뉴스



희귀어종 찾는 스타들 SBS 내달 '전설의 빅 피쉬'

SBS TV는 다음 달 초 낚시를 소재로 한 새 예능 프로그램 '전설의 빅 피쉬'를 선보인다고 11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 연예계를 대표하는 낚시꾼들이 세계를 누비며 '빅 피쉬' 그랜드 슬램에 도전하는 내용이다.

행동 대장으로는 배우 이태곤이 출격한다. 이어 열심히 공부하는 낚시 만화도 개그맨 지상형이 뒤를 따른다. 또 최고의 무술감독이자 액션 배우인 정두홍, 위너의 진우, 에이핑크 윤보미도 팀에 합류한다.

첫 번째 도전 장소는 태국이다. 최대 크기 6m, 최대 무게 600kg의 거대 담수어부터 바다의 치타로 불리는 돔새치까지 있는 곳이다. 팀은 '갯지 앤 릴리스' (잡은 물고기는 다시 놓아준다)를 모토로, 현지 고수들에게 조업 방식을 배우고 소통할 예정이다.

윤종신·윤상·린킨파크 조 한 '슈퍼밴드' 합류

JTBC 내달 초 방송

가수 윤종신, 윤상, 널 김종완, 린킨파크 조 한, 악동뮤지션 이수현이 JTBC 뮤지션 발굴 프로그램 '슈퍼밴드'의 마스터군단으로 합류한다.

JTBC는 다음 달 초 선보일 '슈퍼밴드'에 이들이 출연해 일반인의 시선으로 알아채지 못하는 참가자들의 천재성을 발견하고, 선배로서 음악적 조언자 역할을 한다고 11일 소개했다.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조합과 음악으로 만들어질 슈퍼밴드를 결성하는 내용으로 '히든싱어', '팬텀싱어' 제작진이 만든다.



윤종신 윤상

이미 개인 또는 밴드로 지원한 다양한 참가자들이 국내 사전 오디션을 통해 선발됐으며, 5인의 마스터는 심사위원과 라운드별 미션으로 통해 다양한 조합의 음악그룹을 '슈퍼밴드' 후보로 만들어낼 예정이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1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강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용왕님 보우하사(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닥터 365 40 강남스캔들
[9]	30 KBS 뉴스	00 비켜라 운명(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자유한국당 4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아이템(재)	00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자유한국당 40 살맛 나는 오늘
[11]	40 코리언 지오그래픽 플러스	00 동네변호사 조들호 2 :죄와 벌(재)		00 우리끼리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10 생생정보 스페셜 55 제보자들(재)	00 12 MBC 뉴스 25 경성판타지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특목 보합설계
[1]	00 KBS네트워크극선 거북이 뉴스 5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25 뿌까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40 와이드 코리아 플러스(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0 뉴스브리핑
[3]	00 가요무대(재)	00 자동차부착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아이돌 타임 프리파라 55 뽀빠뽀 뽀모두 놀자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25 에어로비 55 5 MBC 뉴스	00 고향견문록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영화가 좋다(재)	15 좌충우돌 만국 유랑기	00 SBS 오뉴스 45 KBC 저널리즘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5 생방송 빛날	00 영재발굴단(재)
[7]	00 KBS 뉴스 7 40 전라도 매력청	50 원손잡이 아내	15 용왕님 보우하사 55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30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30 비켜라 운명아	30 글로벌24 55 덕화티비	55 휴먼 다크 사람이 좋다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 9 55 나의 독립 영웅 <송몽규>			
[10]	00 시사기획 창 55 UHD 스테	00 동네변호사 조들호 2 :죄와 벌	00 아이템	00 해치
[11]	00 오늘밤 김재동 40 거리의 만찬(재)	10 일맞춤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부
[12]	30 KBS 뉴스 40 KBS 결탁 다크멘터리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05 100분 토론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45 띠띠뽀 띠띠뽀(재)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특!특! 보니 히1~5
06:00 한국기행(재)	12:10 행복한 교육세상	19:00 미니특공대 X
06:20 세계테마기행(재)	13:00 다크 오늘	19:30 EBS 뉴스
07:00 너티니츠	13:10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	19:50 극한직업 스페셜(재)
07:30 고고다노 공룡탐험대	13:4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20:40 세계테마기행
08:00 당동댕 유치원1~2	14:30 정글에서 살아남기-마루의 어드벤처	<인생 찬가!> 스리랑카 2부
08:30 띠띠뽀 띠띠뽀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때로는 스리랑카 사람들처럼, 카타리(가)
08:45 방귀대장 뽀뽀이	15:15 탐원 구조대	21:30 한국기행
09:00 뽀뽀뽀 뽀로로	15:45 몬카파	<불과 한 뼘 사이 2부> 고양이는 불이로다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6:15 짝과 팡	21:50 EBS 다크프라이미
09:40 메디컬 다크 - 7요일	16:30 방귀대장 뽀뽀이(재)	22:45 우리만 이력가
10:30 한국기행	16:45 당동댕 유치원1~2	23:55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15 마사와 곰	24:45 지식채널e
<방풍 조개된장국과 김 두부말이>	17:30 로보카 폴리	24:50 한국영특특 <김기>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12일(음 2월 6일 戊申)

<p>子 36년생 열심하면 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다. 48년생 상당한 고통이 따를까 감안해야겠다. 60년생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으나, 72년생 가벼운 징후가 현상으로 비화 되지 않도록 하자. 84년생 함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기회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09, 97</p>	<p>午 42년생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도 끊임없이 진행되리라. 54년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66년생 조금 불편하더라도 감수하면서 절제적으로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78년생 파격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90년생 당장 실행해야 하므로 주저하지 말라. 행운의 숫자 : 87, 33</p>
<p>丑 37년생 상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야 하느니라. 49년생 생 실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61년생 바로 그것이 자신이 찾고 있던 바이다. 73년생 처리해야 할 일과 범위가 넓어지는 마당이다. 85년생 지나치다면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83, 51</p>	<p>未 43년생 기본적인 이치에 따르는 것이 순탄하다. 55년생 숨은 카드를 꺼내들어야 할 결정적인 시기이다. 67년생 불만이라면 빨리 청산해야 마땅하다. 79년생 체면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 낫다. 91년생 공로의 금지탑이 눈부시게 빛나겠다. 행운의 숫자 : 22, 56</p>
<p>寅 38년생 투명하게 매듭을 지어 놓음이 합당하다. 50년생 모르고 있으면 더 나은 뻔한 일이 보인다. 62년생 시기를 놓친다면 헛수고에 지나지 않게 된다. 74년생 순간적인 성공함이 결정적으로 손재수를 야기하리라. 86년생 귀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67, 66</p>	<p>申 44년생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니 뜬 구름 잡지 말고 현실로 돌아오라. 56년생 마무리가 좋으면 성취하는 바가 많으리라. 68년생 새로운 것에 행운이 깃들여 있다. 80년생 성과를 확산한다면 당장 실행해도 된다. 92년생 옛 것으로부터 기회가 올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73, 68</p>
<p>卯 39년생 길인을 만나리라. 51년생 풍년에 수확한 곡식을 가득 넣어둔 광속의 쥐 격으로 볼 수 있다. 63년생 대비하지 않으면 피해가 속출 하리라. 75년생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면서 나아가자. 87년생 겉보기보다는 내실을 기해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57, 43</p>	<p>酉 45년생 기존에 진행시켜왔던 일에 온통 집중하자. 57년생 확실치 대처리한다면 막을 수 있다. 69년생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할 때이다. 81년생 별로 마음에 차지 않더라도 상대에게 따라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93년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38, 40</p>
<p>辰 40년생 끝까지 유지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52년생 살펴봐야 할 취약점을 발견할 수 있다. 64년생 먼저 손을 쓴다면 성사 된다. 76년생 사실로 확인 되었을 때는 이미 늦으니 예견한 후에 대처하라. 88년생 편견 없는 발상이 성사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5, 35</p>	<p>戌 34년생 보이지 않는 작용력을 감지할 필요가 있느니라. 46년생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58년생 방치 하다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 70년생 주관과 소신은 가지되 대세에 편승하라. 82년생 균형을 유지하면서 지속되어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61, 62</p>
<p>巳 41년생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니라. 53년생 고통은 따르지만 득이 되는 일이나, 65년생 자연스러운 것이 훨씬 어울린다. 77년생 무의미한 과정은 미련 없이 삭제하는 것이 유용하다. 89년생 시끄러운 문제가 다가오고 있으니 각오하라. 행운의 숫자 : 28, 53</p>	<p>亥 35년생 구별할 필요가 있다. 47년생 의연히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9년생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적절한 판이다. 71년생 처음부터 짧은 인연임을 알고 대해야겠다. 83년생 거의 모든 재앙은 무리함에서 비롯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인식하자. 행운의 숫자 : 53, 85</p>